

His Throne will be forever

예레미야 31:1

사랑하는 여러분 한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2주간 우리는 구약성경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기억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 세운 인간의 반역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누구였나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며 이것을 반드시 이뤄가시겠다는 의미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넘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갔을까요?

1.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이 되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점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즉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며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간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러 명

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때마다 사사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사사는 임시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러나 임시적인 통치자입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며 율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의 각 지파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며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 당하고,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압제로 인해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삿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그 때에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문구로 평가내립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줄 평’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도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삼상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요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그저 주변 민족들에게 있었던 왕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주변 민족을 침략하여 국력을 키우는 이방 왕들의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선조들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은 선조들의 경험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주변 민족과 같이 다스리게 해 달라는 이 요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인간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백성들의 원함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 가장 키가 커서 매우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힘이 세 보이고, 가문도 좋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주변 민족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힘이 더욱 센 골리앗 앞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통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주변 민족들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왕을 세우셔서, 그러한 왕의 통치 방식으로는 더더욱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훗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삼하7:11-16)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으므로,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 왕국 또한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을 비롯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왕이 등장하곤 했지만, 다윗이 밋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듯이 모든 다윗의 후손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왕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죽음 당했고, 어떤 이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또 어떤 이들은 황폐해진 가나안 땅에 남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은 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도 되는 것이냐고, 정녕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다윗 왕조 또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 왕조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 왕국 또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끝내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 또한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렘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결국 실패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취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세워졌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 온 땅과 모든 민족으로 더욱 확장되어 세워져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여 무덤에 누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이제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무관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계실 것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인간 왕들과는 달리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원토록 견고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오늘날 이루시기 바랍니다.